

23-04 2023.03.29

현안과 과제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목 차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1
3.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3
4. 시사점	6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주 원 경 제 연 구 실 장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 개 요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민관협력 기반의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 및 소비 활성화 지원 등으로 관광 시장 활성화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고물가·고금리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이 목적하는 만큼의 관광 시장 수요 진작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내수 침체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해 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① 단기 효과 분석 결과

이번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2023년 관광산업 내 부가가치유발액은 4조 6,000억 원으로 GDP의 0.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져오는 총 생산유발액은 11조 2,700억 원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생산유발액은 7조 2,7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생산유발액은 4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4조 6,000억 원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8,8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7,200억 원으로 분석된다. 고용 효과를 보면 총 취업유발인원은 11만 7,900명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취업유발인원은 7만 4,100명이고 외국인 방한관광 효과는 4만 3,800명에 달한다.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관광산업 내 단기 효과 >

구 분	내국인 국내관광	외국인 방한관광	합계
소비지출액 증가분	6조 500억 원	3조 2,400억 원	9조 2,900억 원
생산유발액	7조 2,700억 원	4조 원	11조 2,7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 8,800억 원	1조 7,200억 원	4조 6,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만 4,100명	4만 3,800명	11만 7,900명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② 중장기 효과 분석 결과

이번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관광산업 이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단기효과(관광산업) 및 중장기효과(관광산업 외)를 합하면, 생산유발액 17조 9,6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7조 3,600억 원, 취업유발인원 17만 2,800명으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 중장기 효과만 살펴 보면, 우선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중장기 생산유발효과(관광산업 외)는 6조 6,9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생산유발액은 4조 4,1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생산유발액은 2조 2,800억 원이다.

또한,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중장기 부가가치유발효과(관광산업 외)는 총 2조 7,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7,8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9,800억 원이다.

한편, 관광산업 이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유발인원은 5만 4,900명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취업유발인원은 4만 4,100명이고 외국인 방한관광 효과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은 1만 800명에 달한다.

■ 시사점

단기적으로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중장기 관광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상 회복으로 글로벌 관광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가운데 국내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 **둘째,** 한류, 의료 등 관광자원의 대외 홍보 강화, 합리적인 출입국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 주력 산업의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 산업 발전 전력 마련이 필요하다.

1. 개요

-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
 - 정부는 민관협력 기반의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 및 소비 활성화 지원 등으로 내수 활력 제고를 기대
 - 50여 개의 메가 이벤트,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 등의 민관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 방한 여건 개선 및 K-콘텐츠 개발을 통한 외국인 방한 관광객 유치 등
- 이번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내수 침체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2.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① 분석 가정(전제)

- 정부의 「3·29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내국인 국내 관광객 및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정부의 「3·29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내국인 국내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가정
 - 2023년 해외여행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0~95%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¹⁾되는 가운데 내국인 국내 관광객은 「3·29 내수 활성화 대책」 효과로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외국인 방한 관광객은 보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약 60%까지 회복할 것으로 가정
 - 2022년 외국인 방한 관광객은 2019년 수준의 약 20%까지 회복한 가운데 이번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2019년 외국인 방한 관광객수 대비 약 60%(1,000만 명)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제

1) 유엔세계관광기구, "TOURISM SET TO RETURN TO PRE-PANDEMIC LEVELS IN SOME REGIONS IN 2023", 2023.01.17.

② 분석 방법

○ (이용 자료) 산업연관표, 국민여행조사, 외래관광객조사 등을 활용

-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의 2019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및 고용표
 - 2019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
- 디플레이터 : 국민계정 사용
 - 2019년 대비 2022년 디플레이터 증가율을 적용하고 이를 2023년 경상 금액으로 가정
- 관광객 소비지출 비중: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여행조사 및 외래관광객조사 사용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G), 운송서비스(H),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I),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R), 기타 서비스(S) 등에 지출
 - 국민여행조사 및 외래관광객 조사의 소비지출 비중을 이용하여 내국인 국내 관광객 및 외국인 방한 관광객 소비지출액을 연관산업에 배분하여 이들 6개 부문의 최종수요 변동으로 간주

< 관광객 소비지출 비중 및 연관산업 >

연관산업	지출항목	내국인 국내 관광객	외국인 방한 관광객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G)	쇼핑비	11.3%	47.4%
운송서비스(H)	교통비	26.7%	6.4%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I)	음식점비, 숙박비, 식음료비 등	50.4%	40.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Q)	치료비	—	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R)	여행활동비, 문화/오락 관련 지출	5.8%	1.9%
기타 서비스(S)	여행/모임 회비, 데이터 통신비, 기타 비용 등	5.8%	1.9%
합		100%	1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국민여행조사 및 외래관광객조사를 이용하여 비중 계산.

3.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① 단기 효과 분석 결과

- (단기 효과) 정부의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2023년 관광산업 내 부가가치유발액은 4조 6,000억 원으로 2023년 GDP의 0.2% 수준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져오는 총 생산유발액은 11조 2,700억 원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생산유발액은 7조 2,7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생산유발액은 4조 원임
 -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4조 6,000억 원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8,8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7,200억 원임
 - 고용 효과를 보면 총 취업유발인원은 11만 7,900명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취업유발인원은 7만 4,100명이고 외국인 방한관광 효과는 4만 3,800명임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관광산업 내 단기 효과 >

구 분	내국인 국내관광	외국인 방한관광	합계
소비지출액 증가분	6조 500억 원	3조 2,400억 원	9조 2,900억 원
생산유발액	7조 2,700억 원	4조 원	11조 2,7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 8,800억 원	1조 7,200억 원	4조 6,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만 4,100명	4만 3,800명	11만 7,900명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② 중장기 효과 분석 결과

- (중장기 효과)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관광산업 이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단기효과(관광산업) 및 중장기효과(관광산업 외)

를 합하면, 생산유발액 17조 9,6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7조 3,6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17만 2,800명임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중장기 생산유발효과(관광산업 외)는 6조 6,900억 임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이 관광산업 이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6조 6,900억 원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생산유발액은 4조 4,1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생산유발액은 2조 2,800억 원임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관광산업 및 관광산업 외 생산유발액 >
(단위: 억 원)

구 분		내국인 국내관광	외국인 방한관광	합계
합계		116,800	62,800	179,600
관광산업(2023년 효과)		72,700	40,000	112,70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1,300	17,900	29,200
	운송서비스	23,500	5,400	28,90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0,100	14,200	44,30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800	8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3,800	800	4,600
	기타 서비스	4,000	900	4,900
관광산업 외(중장기 효과)		44,100	22,800	66,9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중장기 부가가치유발효과(관광산업 외)는 총 2조 7,600억 원임

- 관광산업 이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유발액은 총 2조 7,600억 원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7,8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9,800억 원임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관광산업 및 관광산업 외 부가가치유발액 >
(단위: 억 원)

구 분		내국인 국내관광	외국인 방한관광	합계
합계		46,600	27,000	73,600
관광산업(2023년 효과)		28,800	17,200	46,00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100	9,500	15,600
	운송서비스	8,500	2,000	10,50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300	4,500	14,80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400	4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2,100	400	2,500
	기타 서비스	1,800	400	2,200
관광산업 외(중장기 효과)		17,800	9,800	27,6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관광산업 이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유발인원은 5만 4,900명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취업유발인원은 4만 4,100명이고 외국인 방한관광 효과에 따른 취업유발인원은 1만 800명임

<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관광산업 및 관광산업 외 취업유발인원 >
(단위: 명)

구 분	내국인 국내관광	외국인 방한관광	합계
합계	118,200	54,600	172,800
관광산업(2023년 효과)	74,100	43,800	117,90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3,200	20,800	34,000
운송서비스	16,300	3,700	20,00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3,700	15,900	49,60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900	9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3,400	700	4,100
기타 서비스	7,500	1,800	9,300
관광산업 외(중장기 효과)	44,100	10,800	54,9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첫째, 일상 회복으로 글로벌 관광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가운데 국내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

- 주요국의 코로나 방역상황이 개선되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내 여행지의 개발과 숙박 및 교통 비용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이 필요함

둘째, 한류, 의료 등 관광자원의 대외 홍보 강화, 합리적인 출입국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의 방한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한류, 의료 등 관광자원의 마케팅 강화

와 주변국에 비해 환경적 안전도(코로나19, 방사능 등으로부터의 안전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시켜 여행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야 할 것임

- 또한, 합리적인 출입국 절차, 대중교통 활성화 등 외국인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성장 주력 산업의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증장기 산업 발전 전력 마련이 필요함

- 한편,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관광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HRI**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구 원 (2072-6248, syroh@hri.co.kr)